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A Comparison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of the Urban Couples in Korea and Japan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소비자학과
교 수 이 기 영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 교수 이 연 숙

한국방송대학교 가정학과
교 수 김 외 숙

대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조 회 금

Dept. 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 ... Ki Young Lee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
Associate Prof. ... Yon Suk Lee

Dep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
Prof. ... Oi Sook Kim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tudies, Taegu Univ.
Associate Prof. ... Hee Keum Cho

<목 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해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division of housework of urban couples in Korea and Japan. The data for 214 Korean couples living in Seoul and 162 Japanese couples in Tokyo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ime diaries. The division of housework were analyzed according to employed status of wiv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erally Koreans and Japanese had similar patterns in the division of housework between husbands and wives. Husbands of full-time employed wives spent more time on housework than husbands of part-time employed wives and full-time wives. But the division of housework between spouses of part-time employed wives in Japan was a little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partners. Especially the husbands of full-time employed wives in Japan do housework the most among all types of husbands.

I. 서론

오늘날 우리사회의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는 경향이다. 이는 가사노동만을 수행하던 기혼여성들이 시장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여성의 역할이 변화함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기혼여성의 이중역할과 관련하여 가사노동의 분담문제가 사회적, 학문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부부간의 가사분담문제가 대두된 배경에는 기혼취업여성의 역할과중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성의 가사참여는 그 외에도 다양한 의의를 갖고 있다. 즉 기혼남성의 시간배분을 보면 많은 시간을 취업노동과 생리적 활동에 사용하고 가사노동은 별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편중된 시간배분은 다양한 생활경험을 제한하고 가정에서의 소외감을 야기시키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의 생활도 왜곡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더구나 가족과 떨어져 단신으로 부임하는 기혼남성이나 부인과 사별한 독거남성노인이 증가하는 현상도 남성의 자립적 생활능력 개발과 관련하여 남성의 가사참여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다.

그런데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정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서구의 경우 부인의 취업과는 관계없이 남편의 가사참여수준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적지 않지만 최근 부부간의 역할들이 변화되거나 불분명해진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일본은 서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와 유사한, 유교적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문화권으

로서 서구에 비하여 남편의 가사분담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mo, 1994).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과거의 역사로 인하여 상호이해를 위한 노력이 불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 국민의 시간사용에 대한 비교연구는 양국의 생활양식과 생활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고, 본 연구자들은 한일 양국의 근로자가정 부부를 조사대상으로 동일한 조사법을 적용하여 양국 부부의 시간사용실태를 조사하였고, 시간사용의 전반적인 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이기영 외, 1996).

이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사분담에 초점을 맞추어 한일 양국 근로자가정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가사참여율, 가사노동분담률 및 평등지수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의 구조와 성평등의 실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요일과 부인의 근무형태가 시간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일과 휴일별로, 부인의 근무형태에 따라 가사노동분담을 비교하기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사분담 이론

부부의 가사분담 수준이 결정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으로는 경제적 효율가설, 이용가능한 시간 가설, 상대적 자원가설, 성역할관념 가설 등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김의숙 외, 1986; 허경옥, 1994; 조미환, 1996; 문숙재 외, 1997).

경제적 효율가설(the economic efficiency perspective)은 가족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가사노동시간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보아 임금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며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가사노동을 더 많이 한다고 설명한다. 이용가능한 시간 가설(the time availability perspective)은 시간제약으로 인하여 이용가능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가설로서 주부의 취업상태 또는 근로시간으로 그 제약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긴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게 된다. 상대적 자원가설(the relative resources perspective)은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종, 가사노동 선호 및 흥미 등으로 측정되는 개인의 자원이 가사노동시간을 결정한다는 가설로서 소득, 교육, 직종 등의 지위가 높을 경우 가사노동과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이 더욱 많으므로 이러한 자원을 더 많이 소유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가사노동에 대한 선호 및 흥미가 많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역할 관념가설(the sex-role attitude perspective)은 성별역할분업, 부모역할, 주부취업,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 등 성역할에 대한 관념이나 태도가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로서 남편의 성역할 관념이 보수적이고 전통적일수록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한다고 설명한다.

2. 가사분담의 측정

부부의 가사분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부부가 서로의 수행정도를 주관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질문지에 응답하는 '상대적 참여평가'와 시간일지를 기록하는 '객관적 시간일지조사'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연구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당활동에 대한 상대적 참여정도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상대적 참여평가 방법은 측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부부의 가사시간을 비교하기 어렵고 부부간의 응답이 불일치하는 등 제한점이 있다. 반면 해당활동에 소비한 시간량을 조사하는 객관적 시간조사는 응답자의 시간일

지 기록에 따른 번거로움과 많은 수의 응답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 그리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 등이 있지만 실제시간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통계적으로도 다루기 쉬운 척도로 측정된다는 점에서 선호된다(이미숙, 1995; 조미환, 1996).

시간일지 조사를 통해 측정된 자료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자체를 나타내는데, 부부간의 분담수준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량을 근거로 가사분담률과 같은 상대적 비중을 산출해야 한다. 많은 선행연구(Bergen, 1990; Perry-Jenkins & Crouter, 1990; Rexroat & Shehan, 1987)에서는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비율화한 가사분담률로서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중 남편시간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한편 Kirijavainen (1984)은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나누어 부부간 성평등정도를 평등지수(equality ratios in household production)로 지수화하였다. 이때 지수값은 적을수록 남편과 부인이 보다 평등하게 가사를 분담함을 의미한다.

3. 가사분담의 국제비교

정확한 국제비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국의 자료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특히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결과를 비교하여 해석할 경우 조사지역의 특성, 조사시기, 조사대상집단의 특성, 측정도구 등의 일치여부를 유의하여 해석해야 한다. 시간사용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부부를 동시에 조사해야 하는 부부간의 가사분담에 대한 국제비교연구는 더욱 어려워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Calasanti와 Bailey(1991)의 미국과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 연구, Kalleberg와 Rosenfeld(1990)의 미국,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의 비교연구, Kamo(1994)의 미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등이 있다. Calasanti와 Bailey는 미국과 스웨덴에서 각 배우자에 의해 수행되는 가사노동의 다양한 결정요인의 효과에 있어서 비교문화적인 일관성을 거의 발견하지 못하였고, Kalleberg와 Rosenfeld는 미국을 포함한 4개국 응답자의 직업노동시간과 수행한 가사노동 비율과의 관

계가 일관된 부정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발견함으로써 시간유용성의 관점을 지지하였다(Kamo, 1994).

대도시에 거주하는 미국부부와 일본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한 Kamo(1994)는 먼저 이루어진 미국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일본에서 동일한 과정을 거쳐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의 가사분담에 대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본남편은 가사의 13%를 분담하여 29%를 분담하는 미국남편보다 더 적게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부간의 가사분담을 설명하는 시간유용성, 상대적 자원, 성역할태도 가설 등의 연구모델이 두 나라 모두에서 지지되나 미국에서 더욱 설명력이 강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개인주의와 합리적 선택이 보다 강조되는 미국사회와 가족생활 등 집단적 지향을 가지며 성별 역할분업이 뚜렷한 일본사회의 현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부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방식에는 그 문화권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부부간 가사분담의 수준, 특히 남편의 가사참여율과 가사분담률에 있어서 국가별 특성을 분석하면 그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나 가정규범, 사회구조의 특성 등을 비교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 근로자가정 부부의 가사분담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한일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량은 부인의 근무형태별, 평일과 휴일별로 어떠한가?
2. 한일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참여율은 부인의 근무형태별, 평일과 휴일별로 어떠한가?
3. 한일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량은 부인의 근무형태별, 평일과 휴일별로 어떠한가?
4. 한일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률은 부인의 근무형태별, 평일과 휴일별로 어떠한가?

Ⅳ. 연구방법

1. 조사도구

본 연구는 시간일지표와 질문지를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조사도구들은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2회에 걸친 회의를 거친 후 완성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양국의 생활문화의 차이를 통합·조정하여 가사노동은 모두 9개 항목, 즉 조리, 설거지, 청소 및 주생활관리, 세탁 및 의생활관리, 재봉, 자녀돌보기, 가족돌보기, 부모나 친척관련일, 시장·은행·관공서 관련일로 세분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18세 이하의 자녀 1명 이상과 함께 거주하는 근로자 남편과 그 부인으로서 한국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하는 부부이며, 일본의 경우 도쿄(東京)의 세타가야구(世田谷區)에 거주하는 부부이다.

목표표본은 한국의 경우 240쌍, 일본의 경우 162쌍의 부부이었으며,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 부부 214쌍, 일본 부부 136쌍이었다.

조사는 한일 양국 모두 1995년 10월 16일에서 11월 4일 사이에 면접이나 피조사자의 기록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조사된 자료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코딩하여 디스켓으로 교환하였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한일 양국의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연령을 보면 한일공동으로 부부 모두 30대가 가장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평균연령이 남편 39세, 부인 36세이나 일본의 경우 남편이 43세이고 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집 단		한 국				일 본			
		남 편		부 인		남 편		부 인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연령	20-29	13	6.0	45	20.8	6	4.7	12	8.5
	30-39	118	52.1	101	46.8	60	44.2	61	45.7
	40-49	62	28.6	62	28.7	52	38.0	49	35.7
	50이상	29	13.4	8	3.7	18	13.2	14	10.1
	평균	38.8		36.1		42.8		40.8	
교육 수준	중졸미만	4	1.9	20	9.7	4	3.1	1	0.8
	고졸	52	23.9	77	35.3	20	14.7	39	28.7
	전문대졸	16	7.3	21	9.6	6	4.7	47	34.9
	대졸이상	138	65.7	89	43.0	101	74.4	44	32.6
취업 형태	전일제	198	91.3	82	37.6	133	100.0	79	58.1
	시간제	10	4.6	26	11.9	-	-	29	21.3
	무직(주부)	-	-	101	49.5	-	-	27	19.9
직업	판매서비스직/노무직	43	19.8	37	35.6	12	8.8	8	9.1
	사무직	47	21.7	32	30.8	42	30.9	46	52.3
	전문기술직	63	28.9	34	32.7	40	29.4	32	36.4
	관리직	64	29.4	1	1.0	33	24.3	2	2.3
소득	100만원 이하	34	15.7	178	81.7	-	-	-	-
	101-150만원	69	31.8	27	12.4	-	-	-	-
	151-200만원	67	30.9	9	4.1	-	-	-	-
	201만원 이상	47	21.7	4	1.8	-	-	-	-
	8만엔 미만	-	-	-	-	3	2.2	46	33.8
	8 - 15만엔미만	-	-	-	-	-	-	16	9.5
	15 - 25만엔미만	-	-	-	-	15	10.2	19	14.0
25 - 35만엔미만	-	-	-	-	25	18.4	33	23.5	
35 - 50만엔미만	-	-	-	-	53	38.2	20	14.7	
50만엔 이상	-	-	-	-	40	29.4	2	1.5	
가사 보조자	유	50 (23.0)				24 (18.0)			
	무	167 (77.0)				109 (82.0)			

인이 41세로서 한국의 조사대상자가 일본의 대상자보다 4-5세 젊다.

교육수준은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많은 특성을 보이고, 한국 부인의 경우 전문대 졸업생은 일본보다 훨씬 적으나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율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일본의 경우 여자전문대학이 발달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인의 취업형태를 보면 한국의 조사대상은 전일제로 일하는 비율이 38%,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12%, 전업주부가 50%로서 전업주부 부부가 가장 많고, 일본의 대상은 각각 58%, 21%, 20%로서 이러한 비율은 본 조사의 비확률적 표집방법의 한계로 한일 각국 기혼여성의 취업형태별 비율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성의 시간제노동자 비율이 1993년의 경우 일본은 여성노동자의 32%, 우리나라는 8%로서 일본의 기혼여성이 한국인보다 시간제로 일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부 이외의 직업분포를 보면, 남편의 경우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일본보다 판매서비스직과 노무직, 관리직의 비율이 더 많고, 사무직과 전문기술직은 더 적다. 부인의 경우 한국의 조사대상자는 판매서비스직/노무직, 사무직, 전문기술직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부인은 사무직 조사자가 받을 넘고 있으며(52%), 판매서비스/노무직 비율은 1할 미만(9%)이다.

가사보조자 유무를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가사보조자가 있는 비율이 5% 더 많다.

V. 결과 및 해석

1. 가사노동시간량

한일 양국 근로자 부부의 시간사용일지 분석을 통해 부인의 취업형태에 따라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1) 평일

우선 부부의 평일 가사시간을 합한 총시간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일본이 많고, 양국 모두 전업주부의 가정이 가장 많으며, 전일제 취업주부의 가정이 가장 적다. 이는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가사시간이 감소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양국의 가사시간의 실태와 차이를 비교하기로 한다.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은 한일간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이 한국보다 총가사노동시간이 42분 더 길다. 이는 주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차이(27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일본 남편의 가사참여가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 있어서는 일본남편은 한국남편보다 가사노동시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일본 전업주부의 남편보다도 짧아 가장 전통적인 노동분담을 보이고 있다. 전업주부 가정의 경우 양국 부부의 가사분담시간이 아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평일 양국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을 분석하면,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나 부인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국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시간을 비교하면 일본의 경우 50분, 한국의 경우 23분으로 일본 남편의 가사시간이 훨씬 많다. 한편 부인이 시간제로 취업한 경우 일본 남편은 한국 남편보다 가사시간이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업주부 남편보다도 14분 짧다.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 한정하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세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남

편이 한국보다 다양한 과업에 참여하고 있다. 하루에 10분 이상 참여하고 있는 과업을 비교해 보면 한국 남편은 자녀돌보기 단 한 영역인데 반해 일본의 남편은 자녀돌보기뿐 아니라 조리, 설거지, 세탁 등을 수행하고 있다.

(2) 휴일

휴일에도 부부의 총가사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일본에서 많으며, 양국간의 차이가 평일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 부인의 근무형태별로 대응하여 양국부부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시간제 남편의 경우만 제외하고는 일본의 부부가 각각 한국부부보다 긴 시간을 집안일 하는 데 보인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 그 차이가 가장 커서 일본 전업주부가 한국 전업주부보다 1시간 50분 더 일한다.

한편 평일과 비교한 가사노동 시간의 변화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에만 휴일의 가사노동이 감소하며, 그 밖의 경우 즉 남편과 취업한 부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양국이 동일한데, 이를 통해 부인이 취업한 가정에서는 양국 모두 평일에 밀린 집안일을 휴일에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휴일 가사노동의 부담은 전일제 취업주부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는데, 이는 전일제로 취업한 부인의 휴일 가사노동시간이 남편보다 3시간 이상 더 많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 한정하여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를 세부항목별로 비교해 보면, 휴일에도 한국의 남편들은 자녀돌보기, 부모나 친척관련일, 청소, 시장보기 등의 한정된 과제에만 참여하는데 비해 일본의 남편들은 이러한 과제 외에 세탁, 조리, 설거지 등 다양한 일에 고르게 참여하고 있다.

2. 가사노동참여율과 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

가사노동참여율을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 2>와 가사노동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량을 밝히고자 한 <연구문제 3>을 묶어서 평일 및 휴일로 나누어 분석한 것이 <표 4>와 <표 5>이다.

〈표 2〉 평일의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조리	0.01	1.05	0.00	1.19	0.01	1.48	0.06	1.06	0.01	1.28	0.01	1.37
설거지	0.04	0.21	0.00	0.37	0.02	0.39	0.10	0.30	0.02	0.41	0.01	1.04
청소·주생물관리	0.01	0.24	0.02	0.44	0.02	1.04	0.04	0.09	0.00	0.35	0.00	0.54
세탁·의생물관리	0.00	0.14	0.00	0.26	0.01	0.39	0.11	0.25	0.01	0.38	0.00	0.46
재봉·뜨개질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1	0.00	0.06	0.00	0.07
자녀돌보기	0.14	0.59	0.13	0.51	0.08	2.19	0.17	1.00	0.01	0.41	0.11	1.57
가족돌보기	0.01	0.05	0.00	0.07	0.00	0.11	0.00	0.00	0.00	0.00	0.00	0.02
부모나 친척	0.00	0.01	0.00	0.00	0.00	0.04	0.00	0.03	0.00	0.05	0.01	0.26
시장·은행·관공서	0.01	0.07	0.03	0.13	0.00	0.57	0.02	0.15	0.00	0.20	0.06	0.46
계	0.23	3.15	0.17	4.16	0.14	7.41	0.50	3.30	0.05	4.35	0.19	7.38

〈표 3〉 휴일의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조리	0.02	1.26	0.01	1.22	0.04	1.27	0.12	1.19	0.17	1.16	0.05	1.18
설거지	0.01	0.28	0.00	0.32	0.02	0.27	0.12	0.45	0.06	0.48	0.07	0.52
청소·주생물관리	0.31	0.50	0.06	0.32	0.22	0.43	0.27	0.50	0.08	0.41	0.27	0.52
세탁·의생물관리	0.04	0.38	0.02	0.22	0.02	0.20	0.25	0.53	0.02	0.51	0.10	0.45
재봉·뜨개질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0	0.06	0.00	0.06
자녀돌보기	0.46	0.55	0.32	0.46	0.28	0.46	0.44	1.09	0.06	0.54	0.56	1.16
가족돌보기	0.00	0.01	0.00	0.01	0.02	0.03	0.12	0.16	0.00	0.05	0.21	0.26
부모나 친척	0.36	0.39	0.17	0.18	0.24	0.21	0.04	0.04	0.00	0.04	0.06	0.09
시장·은행·관공서	0.11	0.31	0.08	0.26	0.16	0.35	0.44	1.02	0.28	1.04	0.39	0.49
계	2.11	5.27	1.07	4.18	1.40	4.42	3.00	6.21	1.07	5.49	2.51	6.32

(1) 평일

〈표 4〉에서 평일의 가사참여율을 보면, 한일 양국 모두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거의 모든 부인들이 가사 활동에 참여하지만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대체로 저조하다. 한일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이를 국가별로

비교하면 일본남편의 참여율이 66%로 한국남편의 28%에 비해 훨씬 높다. 그러나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일본남편은 18%만이 가사에 참여하여 한국남편의 28%에 비해 낮다. 또한 전업주부 남편의 참여율도 한국남편이 23%로 일본남편의 22%에 비해 근소하나마 약간 더 높다.

〈표 4〉 평일의 가사참여율 및 참여시간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조리	2.5	0.45	83.5	1.18	0.0	0.00	92.0	1.25	1.1	0.45	95.7	1.53	1.07	7.1	0.15	92.9	1.35	3.7	0.15	100.0	1.37				
설거지	5.0	1.26	65.8	0.31	0.0	0.00	76.0	0.48	3.2	1.15	75.5	0.51	0.36	7.1	0.30	92.9	0.45	3.7	0.30	96.3	1.06				
청소·주생물관리	3.7	0.35	51.3	0.46	8.0	0.22	68.0	1.04	6.4	0.33	79.8	1.20	0.36	0.0	0.00	82.1	0.43	0.0	0.00	81.5	1.07				
세탁·의생활관리	1.3	0.15	29.1	0.46	0.0	0.00	48.0	0.55	2.1	0.38	53.1	1.14	0.38	3.6	0.30	85.7	0.44	0.0	0.00	96.3	0.47				
재봉·뜨개질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1	1.00	0.0	0.00	7.1	1.30	0.0	0.00	22.2	0.33					
자녀돌보기	20.2	0.57	68.2	1.26	16.0	1.19	64.0	1.20	14.9	0.56	79.8	2.54	1.09	62.2	1.36	7.1	1.15	11.1	1.40	63.0	3.06				
가족돌보기	5.0	1.30	17.7	0.25	0.0	0.00	16.0	0.45	0.0	0.00	24.5	0.44	0.0	0.00	7.1	1.08	3.7	0.22	18.5	2.18					
부모나 친척	0.0	0.00	1.3	1.00	0.0	0.00	0.0	0.00	0.0	0.00	3.2	2.10	0.0	0.00	0.0	0.00	0.0	0.00	7.4	0.23					
시장·은행·관공서	8.8	0.30	17.7	0.41	4.0	1.15	28.0	0.45	0.0	0.00	68.1	1.24	10.8	0.21	50.0	0.30	53.6	3.7	2.30	81.5	0.56				
계	27.8	1.23	94.9	3.25	28.0	1.02	100.0	4.16	23.4	1.00	98.9	7.46	66.2	1.15	100.0	3.30	100.0	22.2	1.26	100.0	7.38				

(단위: 시간·분)

〈표 5〉 휴일의 가사참여율 및 참여시간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참여율	시간
조리	6.3	0.27	94.9	1.37	4.0	0.30	88.0	1.33	7.4	0.58	92.6	1.33	24.3	0.48	94.6	1.23	21.4	1.18	14.8	0.15	92.6	1.25		
설거지	6.3	0.15	63.3	0.45	0.0	0.00	72.0	0.44	5.3	0.39	64.9	0.41	31.1	0.38	87.8	0.51	21.4	0.30	25.9	0.14	92.6	0.56		
청소·주생물관리	35.4	1.28	74.7	1.07	8.0	1.15	52.0	1.01	24.5	1.28	58.5	1.13	36.5	1.13	73.0	1.09	10.7	1.12	37.0	0.29	85.2	1.01		
세탁·의생활관리	7.6	0.50	60.8	1.03	8.0	0.38	44.0	0.50	6.4	0.35	29.8	1.06	37.8	1.07	75.7	1.10	10.7	0.20	14.8	0.41	88.9	0.50		
재봉·뜨개질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2.2	0.35	0.0	0.00	0.0	0.00	3.7	2.30		
자녀돌보기	35.4	2.09	51.9	1.45	36.0	1.28	36.0	2.07	24.5	1.54	42.6	1.49	32.4	2.17	47.3	2.26	10.7	0.55	37.0	2.05	48.1	2.38		
가족돌보기	0.0	0.00	2.5	0.23	0.0	0.00	4.0	0.15	1.0	3.00	8.5	0.39	4.1	1.45	6.8	0.57	0.0	0.00	11.1	0.40	14.8	1.04		
부모나 친척	12.7	2.46	15.1	1.16	16.0	1.48	12.0	2.30	11.7	3.27	8.5	4.00	6.8	3.04	12.2	2.09	0.0	0.00	7.4	4.45	11.1	3.50		
시장·은행·관공서	12.7	1.30	40.5	4.16	8.0	1.45	32.0	1.21	13.8	1.56	35.1	1.41	45.9	1.36	68.9	1.29	32.1	1.28	40.7	1.02	66.7	1.13		
계	78.5	4.42	98.7	5.31	56.0	2.01	96.0	4.29	59.6	2.49	96.8	4.50	79.7	3.46	100.0	6.21	53.6	2.05	74.1	2.43	100.0	6.32		

(단위: 시간·분)

또 한일 양국 모두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한 경우 가사에 참여하는 남편의 참여시간이 가장 길다. 다음으로 한국은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전업주부에 비해 더 길지만 일본의 경우 오히려 전업주부의 남편이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에 비해 더 길다. 전일제 취업 및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가사에 참여하는 남편의 평균 가사시간을 보면, 한국 남편이 각각 1시간 23분, 1시간 2분으로 일본 남편의 1시간 15분, 30분에 비해 더 길다. 한편 일본의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 참여자 평균시간은 1시간 26분으로 한국보다 26분 더 길다.

활동영역별로 참여시간을 살펴보면,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나 전업주부 남편의 경우에는 국가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으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한국에 비해 일본 남편의 참여영역이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의 경우 자녀돌보기 영역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의 참여율은 10% 이하로 매우 저조한 데 비해, 일본의 경우 자녀돌보기 영역뿐 아니라 조리, 설거지, 세탁·의생활관리 등 가사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2) 휴일

휴일의 경우 한일 양국 모두 평일에 비해 부인은 별 차이가 없으나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난다.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79%,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56%, 전업주부의 남편이 60%의 참여율을 보이며, 일본의 경우 각각 80%, 54%, 74%의 남편이 가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부인의 취업형태에 따라 남편의 참여율이 국가간에 크게 차이나지 않으나 한일 양국 모두 시간제 취업부인 남편의 가사참여율이 가장 낮다.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은 청소·주생활관리 영역에 대한 참여가 두드러지게 늘어나며, 한국의 경우 평일에 비해 자녀돌보기 영역에 참여하는 남편이 많은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시장보기 영역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3. 가사노동 분담률

가사노동 분담률은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총계에서 개인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는 남편과 부인간의 가사노동 분담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1) 평일

〈표 6〉에서 평일 남편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이 11%,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이 6%, 전업주부 남편이 3%이며 일본의 경우 부인의 취업유형별로 각각 20%, 2%, 4%로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이 가사를 분담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부인의 근무형태에 대응하여 양국간 남편의 평일 가사분담률을 비교해 보면,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일본 남편의 분담률이 한국 남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본의 맞벌이 부부가 보다 성평등지향적임을 보여준다. 한국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확대가족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많고 가사보조자 고용비율이 높은 것도 한국 남편이 가사노동을 적게 분담하는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에서는 일본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아주 낮은 특징을 보이는데,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이러한 특징은 앞으로 심층적 분석을 통하여 그 배경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남편의 가사분담률을 활동영역별로 비교하면 한국 남편은 자녀돌보기 영역에서 20%로 가장 높은 분담률을 보이고 설거지, 가족돌보기, 시장·은행·관공서 업무 등에서 부인과 분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 남편은 주생활관리 영역에서 가장 높은 30%의 분담률을 나타내며 이외에도 조리, 설거지, 주생활관리, 의생활관리, 자녀돌보기, 시장·은행·관공서 업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사를 분담하고 있다.

한편 한일 양국 모두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은 평일에 가사분담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담하는 영역도 자녀돌보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사영역별 평일 가사노동분담율을 비

〈표 6〉 평일의 가사분담률

(단위 : %)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조리	1.5	98.5	0.0	100.0	0.9	99.1	8.3	91.7	1.1	98.9	1.0	99.0
설거지	16.0	84.0	0.0	100.0	4.9	95.1	25.0	75.0	4.7	95.3	1.5	98.5
청소·주생활관리	4.0	96.0	4.3	95.7	3.0	97.0	30.8	69.2	0.0	100.0	0.0	100.0
세탁·의생활관리	0.0	100.0	0.0	100.0	2.5	97.5	30.6	69.4	2.6	97.4	0.0	100.0
재봉·뜨개질	-	-	-	-	0.0	100.0	0.0	100.0	0.0	100.0	0.0	100.0
자녀돌보기	19.2	80.8	20.3	79.7	5.4	94.6	22.1	77.9	2.3	97.6	8.6	91.4
가족돌보기	16.7	83.3	0.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부모나 친척	0.0	100.0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7	96.3
시장·은행·관공서	12.5	87.5	18.7	81.3	0.0	100.0	11.8	88.2	0.0	100.0	11.5	88.5
계	10.6	89.4	6.2	93.8	2.9	97.1	19.2	80.8	1.8	98.2	4.0	96.5

〈표 7〉 휴일의 가사분담률

(단위 : %)

가사노동	한 국						일 본					
	전일제 (n=79)		시간제 (n=25)		전업주부 (n=94)		전일제 (n=74)		시간제 (n=28)		전업주부 (n=27)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조리	2.3	97.7	1.3	98.7	4.4	95.6	13.2	86.8	18.3	81.7	6.0	94.0
설거지	3.4	96.6	0.0	100.0	6.9	93.1	21.1	78.9	11.1	88.9	11.9	88.1
청소·주생활관리	38.3	61.7	15.8	84.2	3.8	66.2	35.1	64.9	16.3	83.7	34.2	65.8
세탁·의생활관리	9.5	90.5	8.3	91.7	9.1	90.9	32.1	67.9	3.8	96.2	18.2	81.8
재봉·뜨개질	-	-	-	-	-	-	0.0	100.0	0.0	100.0	0.0	100.0
자녀돌보기	45.5	54.5	41.0	59.0	37.0	63.0	38.9	61.1	10.0	90.0	42.4	57.6
가족돌보기	0.0	100.0	0.0	100.0	40.0	60.0	42.9	57.1	0.0	100.0	44.7	55.3
부모나 친척	48.0	52.0	48.6	51.4	43.3	46.7	50.0	50.0	0.0	100.0	40.0	60.6
시장·은행·관공서	26.2	73.8	23.5	76.5	31.4	68.6	41.5	58.5	30.4	69.6	44.3	55.7
계	28.6	71.4	20.6	79.4	26.2	73.8	32.1	67.9	16.1	83.9	30.4	69.6

〈표 8〉 가사노동시간으로 본 평등지수

요일	전일제		시간제		전업주부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평일	8.5	4.2	15.1	55.0	33.0	24.1
휴일	2.5	2.1	3.9	5.2	2.8	2.3

교해 보면 가사분담율이 20%이상 되는 과업이 한국의 남편에게는 하나도 없는 반면, 일본의 남편은 청소, 세탁, 설거지, 자녀돌보기의 4영역이나 된다.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를 Kirijavainen(1984)의 방법에 따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으로 나눈 평등지수를 통해 비교해 보면 <표 8>과 같다. 평등지수의 값이 적을수록 평등하다고 볼 때, 일본 전일제 취업주부가정, 한국전일제 취업주부가정, 한국시간제 취업주부 가정, 일본 전업주부가정, 한국 전업주부가정 순으로 평등성이 낮아지고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이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휴일

휴일 남편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평일에 비해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증가하는데, 한국의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은 29%,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은 21%, 전업주부 남편은 26%이며; 일본의 경우 각각 32%, 16%, 30%이다. 한일 양국 모두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가장 높지만, 시간제 취업주부의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의 가사분담률도 평일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

휴일에는 남편이 분담하는 과제수도 크게 증가하는데, 남편이 1/3이상 분담하는 과업이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나 친척관련 일, 자녀돌보기, 청소 뿐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부모나 친척관련 일, 가족돌보기, 시장보기, 자녀돌보기, 청소 등 여러 과제이다.

<표 8>에서 가사노동분담을 통한 부부간 평등수준을 보면, 휴일의 경우에도 일본 전일제 취업주부의 부부가 가장 평등하고 다음으로 평일과 달리 일본 전업주부 부부, 한국 전일제 취업주부 부부, 한국 전업주부 부부, 한국 시간제 취업주부 부부의 순으로 평등성이 낮아지고,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 부부는 휴일에도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요일에 따라 평등지수의 순서가 일부 바뀌기도 하나 일본 전일제 취업주부 부부가 가장 평등하고 일본 시간제 취업주부 부부가 가장 불평등한 점은 동일하다.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휴일의 가사분담에 대한 평등지수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이 2.5, 일본이 2.1로

나타나 평일과 마찬가지로 일본 맞벌이 부부 가정이 한국 맞벌이 부부 가정에 비해 더 평등하게 가사를 분담한다고 할 수 있다.

VI. 결 론

한국과 일본의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시간사용일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양국 모두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는 극히 낮은 수준이며 부인이 취업한 경우에도 성별역할분업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부인이 전일제로 취업하게 되면 남편의 참여는 다소 증가하여 시간제 취업주부나 전업주부 가정에 비해 전통적인 성역할 분리를 다소 극복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 양국 모두 취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나, 남편의 경우 한국에서는 부인의 취업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근소하나마 증가하나 일본에서는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참여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참여는 오히려 전업주부 남편보다도 낮다.

둘째, 가사노동시간은 일본이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길며 특히 휴일에 있어 양국간의 차이가 크다.

셋째,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참여율이 가장 높고, 시간제 취업주부 남편의 가사참여율이 가장 낮다. 한국의 전일제 취업주부 남편의 경우 참여율은 일본보다 낮으나 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더 길다. 부인의 경우 가사참여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양국간 유사하다.

넷째, 전반적으로 일본부부가 한국부부보다 가사를 더 많이 분담하고 있다. 부부간의 가사분담률은 일본의 전일제 취업주부 가정이 가장 높고,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가 가장 낮다. 가정관리와 직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시간제 취업가정의 성차별적인 시간배분을 고려할 때 이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앞으로는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서구사회에서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는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가설들이 한일 양국에서는 얼마나 설명력을 갖는지, 또한 일본의 시간제 취업주부 가정의 경우 남편의 가사분담률이 특별히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 한일 양국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함께 사회문화적 배경이 크게 다른 서구사회와의 비교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김외숙·서창원(1986).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방송통신대학 논문집, 5. 425-436.
- 2) 김외숙·이기영·최은숙(1992). 가족자원관리.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3) 문숙재·허경옥·홍운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4) 조미환(1996).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기영·이연숙·김외숙·조희금(1996). 한일양국간 도시부부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145-161.
- 6)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허경옥(1994). 부인과 남편의 가사 및 육아시간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8) NHK放送文化研究所 世論調査部(1994). 生活時間の國際比較. 大空社.
- 9) 世田谷 ライフデザイン研究會(1996). 世田谷區民の生活時間のシエンタ分析. せたがや女性センターらふらす 調査報告書.
- 10) Bergen, E. (1987). The multidimensional nature of domestic labor: An investigation of husbands' participation. Center for Demography and Ecology, Univ. of Wisconsin. NSFH working paper, CDE. Univ. of Wisconsin-Madison.
- 11) Calasanti, T. M., & Bailey, C. A.(1991).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United States and Sweden: A socialist-feminist approach. *Social Problems*, 38. 34-53.(recited from Kamo, 1994)
- 12) Horiuchi, K., Amano, H. & Ito, J.(1997). The actual situations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between husbands and wives: From the viewpoint of time use. *Journal of Home Economics Japan*, 48(3). 209-214.
- 13) Perry-Jenkins, M,& Crouter, A. C. (1990). Men's provider-role attitudes: Implications for household 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1(2). 136-156.
- 14) Rexroat, C., & Shehan, C. (1987). The family life cycle and spouses' time in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737-750.
- 15) Kalleberg, A. L., & Rosenfeld, R. A.(1990). Work in the family and in the labor market: A cross-national, reciprocal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331-346.(recited from Kamo, 1994)
- 16) Kamo, Yoshinori(1994).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the United State and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15(Sep.). 348-378.
- 17) Kirijavainen., L. M.(1984). Men's and women's time use in household production: A Finland-United States comparison, Diss., Ve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 UMI, 1989.